

일본 버섯류 생산 동향

팽이버섯	<p>팽이버섯은 버섯류 중에서도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, 나베요리에는 빠지지 않는 식재료이다.</p> <p>2011년의 생산량은 143,189톤으로, 전년대비 2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후쿠오카현 등이다.</p> <p>* 증감률 : ('10) 140,951톤 → ('11) 143,189, 2% ↑</p>
새송이버섯	<p>새송이버섯은 지중해연안이 원산지로서, 씹는 맛 등 식감이 좋아 동서양의 어느 요리에든 잘 어울려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다. 대기업의 진출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었으며, 2011년의 생산량은 38,055톤으로 전년대비 2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히로시마현 등이다.</p> <p>* 증감률 : ('10) 37,450톤 → ('11) 38,055, 2% ↑</p>
느타리버섯	<p>느타리버섯은 표고버섯과 나메코와 같이 예로부터 재배되고 있지만, 다른 버섯과의 경쟁으로 인해 최근 생산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.</p> <p>2011년의 생산량은 2,082톤으로 전년 대비 18% 감소했다. 주 생산지는 이바라키현, 니가타현, 나가사키현 등이 있다.</p> <p>* 증감률 : ('10) 2,535톤 → ('11) 2,082, 18% ↓</p>
건표고버섯	<p>건표고버섯은 숲 등에서 참나무, 졸참나무 등을 이용한 원목재배로 생산되기 때문에, 기온, 강수량 등의 기상조건에 의해 생산량이 크게 좌우된다.</p> <p>2011년의 생산량은 3,696톤으로 전년대비 5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오이타현, 미야자키현, 구마모토현 등이다.</p> <p>* 증감률 : ('10) 3,516톤 → ('11) 3,696, 5% ↑</p>
생표고버섯	<p>생표고버섯은 건표고버섯과 같이 숲 내에서 이루어지는 원목재배가 주류였지만, 최근엔 원목에 비해 다루기 쉬운 균상재배(톱밥 등을 덩어리로 굳힌 것에 종균을 접종해 버섯을 재배하는 방법)가 급속히 보급되고 있다.</p> <p>2011년의 생산량은 71,254톤으로, 전년대비 8% 감소했다. 또한, 생산량에 대한 균상재배의 비율은 85%로 전년대비 1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원목재배는 군마현, 토치기현, 이바라키현 등이고 균상재배는 도쿠시마현, 이와테현, 홋카이도현 등이다.</p> <p>* 증감률 : ('10) 77,079톤 → ('11) 71,254, 8% ↓</p>

<p>나메코 (담자균(擔子菌) 류에 속하는 버섯)</p>	<p>나메코는 예로부터 숲 내 월목에 의한 재배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, 현재는 공조시설을 활용한 균상재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. 2011년의 생산량은 25,426톤으로 전년대비 7% 감소했다. 주 생산지는 니가타현, 나가노현, 야마가타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0) 27,261톤 → ('11) 25,426, 7% ↓</p>
<p>만가닥버섯</p>	<p>만가닥버섯은 요리 등에 이용하기 쉬운 특징으로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어 최근 생산량이 늘고 있으며, 대기업의 진출로 경쟁 또한 치열하다. 2011년의 생산량은 118,006톤으로 전년 대비 7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니가타현, 후쿠오카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0) 110,486톤 → ('11) 118,006, 7% ↑</p>
<p>앞새버섯 (마이타케)</p>	<p>앞새버섯은 균상재배의 확립, 대기업의 진출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몇 년간 생산량은 4만 3천톤의 추세이다. 2011년의 생산량은 44,453톤으로, 전년대비 2% 증가했다. 주 생산지는 니가타현, 시즈오카현, 후쿠오카현 등으로 특히 니가타현이 전국 생산량의 약 60%를 차지하고 있다. * 증감률 : ('10) 43,446톤 → ('11) 44,453, 2% ↑</p>
<p>송이버섯</p>	<p>송이버섯은 표고버섯, 나메코 등 고사목(죽은 나무)에서 발생하는 부생성 버섯과는 다르게, 소나무 등의 뿌리와 공생관계를 지켜가며 생육하는 균근성 버섯이기 때문에 현재 실용적인 인공재배 기술이 없고 자연발생한 버섯을 채집해 시장 등에 출하하고 있다. 이 때문에 생산량은 기상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. 2011년의 생산량은 36톤으로, 전년대비 74% 감소했다. 또한, 국내 소비량의 97%는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의 반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버섯 이다.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, 이와테현, 이시카와현 등이다. * 증감률 : ('10) 140톤 → ('11) 36, 74% ↓</p>
<p>기타버섯</p>	<p>그 밖의 버섯으로는 최근재배기술이 확립되어 생산이 증가하였거나 이후 성장이 기대되는 하타케시메지, 타모기타케, 혼시메지 등이 있다.</p>

※ 일본의 2011년 버섯류 생산량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출하제한 등의 영향으로 이바라키현, 도치기현을 제외한 45개 도(都)·도(道)·부(府)·현(縣)의 수치이다. (추후 이들 현의 생산량 취합이 이루어질 경우, 확정치를 포함해 공표할 예정) / '12.10.3 일본산림청 발표자료